



지울... 구달... 앤지어... 세 여자가 들려주는...

생명의... 소중함...



도롱뇽과 침팬지. 지난해 겨울 나는 두 동물을 떠올리며 팬스레 가슴이 답답했던 적이 있다. 도롱뇽은 몸의 길이가 15센티미터 가량 되는 양서류인데, 낙엽 밑이나 땅 속에서 작은 벌레를 잡아먹고 산다. 이처럼 보잘 것 없는 동물이 작년 10월 15일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내 최초로 동물을 원고로 내세운 이 소송의 주인공은 천성산에 살고 있는 꼬리치레도롱뇽이다. 1,000명의 성인이라는 뜻이 담긴 천성산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야생보존지역이다. 서어나무를 비롯해 은방울꽃, 열레지 등 야생초의 천국이며 화염늪, 밀밭늪, 무제치늪 등 20여 개의 소중한 습지가 분포되어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러한 천성산을 경부고속철도가 터널로 관통하며 지나가게 됨에 따라 천성산의 온갖 생명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천성산을 살리기 위해 도롱뇽의 대리인이 되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도롱뇽을 원고로 하는 '고속철도 양산시 천성산 구간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도롱뇽 소송을 이끌어낸 인물은 천성산 내원사의 지울 스님이다.

지울 스님은 '열정적인 생태주의자이자 시인이며, 동시에 타고난 예술가적 재능을 지닌 사진작가이기도 한' <녹색평론> 73호, 2003년 11~12월) 비구니다. 여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천성산의 환경보존을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초인적으로 치러냈다. 작년 2월 초부터 부산 시청 앞에서 38일 동안 단식을 해 대통령의 경부고속철도 노선 재검토 지시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여름 43일 동안 부산 시청 앞에서 하루에 3,000번씩 땅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는 3,000배 기도수행을 했으며, 이어서 동지들과 함께 부산에서 천성산까지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의 길을 떠났다. 10월 초부터 45일 동안 다시 단식기도를 하여 세인을 놀라게 했다.

지울 스님이 도롱뇽처럼 하잘 것 없는 생명에까지 연민의 손길을 내미는 이유는 뭘까. 왜 지울 스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부산 시청 앞에서 '희망의 불꽃'을 태웠을까. 나는 <녹색평론> 73호에 실린 네 쪽지의 천성산 환경보존 관련 글을 읽으면서 조금은 화가

《희망의 이유》 제인 구달 지음 | 박순영 옮김 | 궁리 | 350쪽 | 값 9,000원
 《제인구달의 생명사랑 십계명》 제인 구달·마크 베코프 지음 | 최재선 옮김 | 바다출판사 | 272쪽 | 값 10,000원
 《살아있는 것들의 아름다움》 나탈리 앤지어 지음 | 햇살과 나무꾼 옮김 | 해나무 | 374쪽 | 값 10,000원



치밀고 조금은 부끄러워지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지울 스님이 중앙 언론의 무관심 속에 부산에서 무기한 단식기도를 강행하고 있던 11월 초순 제인 구달 여사가 서울을 다녀갔다.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야생 침팬지를 연구한 구달 박사는 1991년부터 청소년 중심의 환경보호 시민운동단체를 조직해 자연과 동물을 지키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69살의 할머니답지 않게 구달 박사는 서울에 머문 며칠 동안 언론의 화려한 조명 세례를 즐기면서 다양한 행사를 치러냈다.

먼저 그의 방한에 맞춰 출간된 《생명사랑 십계명》(바다출판사)을 구입한 독자들에게 서명을 해주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일간지와 인터뷰도 줄을 이었다. 경기 용인시의 테마파크 '에버랜드'를 방문해 동물원에 갇혀 있는 침팬지와 오랑우탄을 살펴보았다. 철창 속 침팬지에게 '우후우후우후후~'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반응이 없자 겸연쩍어 하면서 아프리카 침팬지가 알아듣는 인사말을 한국 침팬지가 모르는 까닭은 침팬지 사회에도 문화권마다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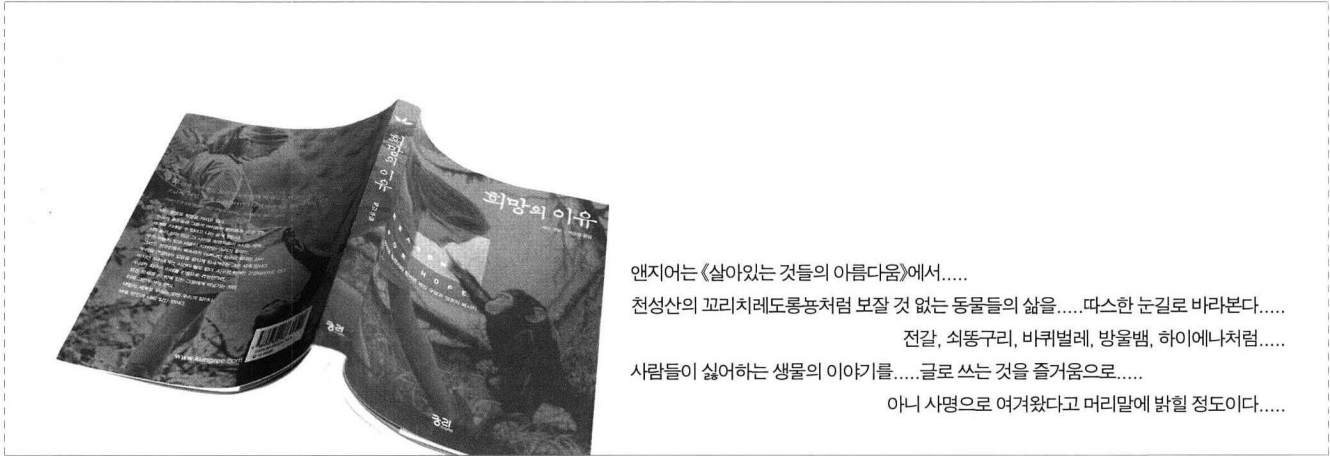
투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쨌거나 구달 여사가 동물원의 영장류들을 보고 열악한 환경을 안타까워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될 정도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의 융성한 대접을 받았다.

더욱이 그의 저서인 《희망의 이유》(공리출판)가 문화방송 프로그램인 '느낌표'의 선정도서로 뽑힘에 따라 구달 박사의 방한 효과는 이래저래 화제가 되었다. '느낌표'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문화방송의 상업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얻게 된 셈이다.

구달 박사를 초청한 쪽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축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 보기엔 결정적인 순간을 한 가지 놓친 것 같다. 만일 구달 여사가 부산으로 내려가 단식중인 지울 스님을 격려했더라면 얼마나 극적이며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었겠는가. 나이 든 서양 여자가 동양의 젊은 비구니와 마주 앉아 도롱뇽과 침팬지를 걱정하는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한 번 상상해보라.

이 무렵 나탈리 엔지어의 《살아있는 것들의 아름다움》(해나무)이 출간되어 동물의 생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책은 풀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여류 과학자지술가인 엔지어가 1995년 펴낸 것으로 1997년 《동물들은 암컷의 바람기를 어떻게 잠재울까》라는 엉뚱한 제목으로 소개된 적이 있다. 두 번역판을 비교해 보고 있노라면 '번역은 번역'이라는 말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목차만 보더라도 도저히 똑같은 원본을 옮긴 책들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제목과 순서가 다르다. 제목이야 옮긴이가 의역하는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원본의 일부를 임의로 삭제한 것은 번역의 정도를 벗어난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할 줄로 안다. 어쨌든 원본에 충실한 번역판이 뒤늦게나마 출간되어 독자들에게는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엔지어는 지난해 6월 번역 출간된 《여자 그 내밀한 지리학》(문예출판사)으로 국내 독자들에게 그 유려한 글솜씨가 알려진 바 있다. 나는 《이인식의 성과학탐사》(생각의나무)를 집필하면서 이 책을 많이 참조했다. 1999년 나온 이 책은 400쪽 가까이 영어 활자가 촘촘히 박혀 있기 때문에 번역이 되지 않을 줄로 알았다. 그런



앤지어는 《살아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에서.....
 천성산의 꼬리치레도롱뇽처럼 보잘 것 없는 동물들의 삶을.....따스한 눈길로 바라본다.....
 전갈, 쇠똥구리, 바퀴벌레, 방울뱀, 하이에나처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생물의 이야기를.....글로 쓰는 것을 즐거움으로.....
 아니 사명으로 여겨왔다고 머리말에 밝힐 정도이다.....

의미에서 이 책을 옮긴이와 펴낸이에게 그 노고를 격려하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앤지어는 《살아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에서 천성산의 꼬리치레도롱뇽처럼 보잘 것 없는 동물들의 삶을 따스한 눈길로 바라본다. 전갈, 쇠똥구리, 바퀴벌레, 방울뱀, 하이에나처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생물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을 즐거움으로, 아니 사명으로 여겨왔다고 머리말에 밝힐 정도이다. 동물에 관한 책을 적잖게 읽어 본 나로서도 앤지어가 이러한 동물들을 묘사하는 솜씨 앞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물행동학자들보다 훨씬 더 자상하고 친절하게 이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쇠똥구리와 바퀴벌레를 소개한 대목은 재치가 넘치고 흥미진진하다.

앤지어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모두는 자연의 독창적인 재 활용가 쇠똥구리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162쪽). 쇠똥구리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쇠똥구리가 똥을 치워주는 덕분에 사람의 눈과 코와 신발 바닥이 똥 때문에 피해를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쇠똥구리는 당장 먹지 않을 똥을 땅에 묻어둠으로써 대기중으로 날아가 버릴 질소를 흙 속에 보존해 땅을 기름지게 한다. 똥을 먹고 사는 쇠똥구리가 대단히 가치 있고 존경할 만한 곤충으로 느껴진다는 앤지어는 그 징그러운 바퀴벌레에게 슬슬 찬사를 보내도 좋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녀살을 떠다(170쪽). 바퀴벌레의 질긴 생명력 때문이라. 어지간한 살충제로는 바퀴벌레를 박멸할 수 없음이 증명되지 않았던가. 게다가 바퀴벌레의 머리는 몸통에서 떨어진 뒤에도 열두 시간 이상 살아서 반응한다지 않은가.

이 책의 미덕은 아무래도 머리말에 밝힌 것처럼 “이 책의 내용이 ‘쇠똥구리와 나’ 라는 식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들로 바뀌었다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감상을 드러낸 글로 단순한 것은 아니다”(27쪽)는 데 있는 것 같다. 나는 동물사회를 연구한 결과를 우격다짐으로 인간의 삶에 결부시킨 글을 가끔 읽곤 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어느 동물은 남의 자식을 기른다. 한국 사람은 외국에 입양

을 많이 시킨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은 동물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러한 삼단논법은 겉으로는 휴머니즘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싸구려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다분히 감상적인 논리 전개에는 위선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만일 그런 글을 쓴 사람 자신이 남의 자식을 입양해 기르지 않고 있다면 그 글은 진정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앤지어는 동물을 빗대어 인간사를 들먹거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쇠똥구리와 나’ 라는 식의 글을 쓰지 않았노라고 강조한 것이다. 역시 앤지어는 일류 글쟁이이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동물의 행동을 잣대 삼아 인간의 잘잘못을 가리는 모럴리스트들의 글쓰기가 재평가되길 바란다.

물론 이 책에는 동물의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 짝짓기, 월경, 비만, 창조, 자살, 에이즈 등 사람살이에 관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소개되어 있다. 나는 마지막 책장을 넘기면서 일개 과학저술가가 여느 동물행동학자 못지않게 탁월한 책을 펴낼 수 있는 미국의 출판풍토를 부러워하면서 한 가지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책 제목이다. 앤지어가 책머리에 현사처럼 남긴 ‘살아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는 문장을 제목으로 삼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는 생각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지울, 구달, 앤지어. 세 여자를 통해 생명의 아름다움을 재확인한 지난 한해 나는 행복한 남자였다. ☞

이 글을 쓴 이인식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해 1971년부터 정보통신업계에 종사했다. 1992년 월간 《정보기술》 발행인을 역임한 뒤 1995년부터 과학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동아일보》 《한겨레》 《주간동아》 《월간조선》 《과학동아》 등 여러 매체에 고정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테크 혁명》 《사람과 컴퓨터》 《미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성이란 무엇인가》 《제2의 창세기》 《21세기를 지배하는 키워드》 《아주 특별한 과학에세이》 등이 있다.